PRESS RELEASE
보 도 자 료

U.S. Embassy, Seoul, Korea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Tel: 397-4637, 4630; Fax: 790-9268

April 6, 2005
05-15

미국, 북한에 조류 독감 관련 지원 제공

다음은 국무부 대변인 리처드 바우처의 2005 년 4 월 5 일 발표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 독감과, 이것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변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4 년 1 월부터 현재까지 가금 인플루엔자 H5N1 으로 알려진 조류 독감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한국과 태국에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조류 독감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북한에서 발견된 인플루엔자의 혈청형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만 50여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만 마리의 가금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감염된 조류 독감에 대한 확인된 치료 방법은 없으며 의학 전문가들은 만약 이 바이러스가 인간간 쉽게 전염될 수 있는 형태로 변이된다면 전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인간 감염 사례들은 대다수가 가금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간간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미국은 현 상황을 다루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국제수역사무국 및 유엔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소속 회원들과 함께 아시아 조류 독감 피해국가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서 발병한 조류 독감의 혈청형을 파악하고 인간 감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실험장비를 제공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 실험장비 제공을 승인하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농무부, 보건복지부,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일부 국가들에게 양자 기술 및 역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1 년간 인플루엔자 전염병 발병 대비를 위해 이 지역과 세계보건기구에 5 백 5 십만 달러에 달하는 기술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전문가 및 실험 시약을 보내는 등의 응급상황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농무부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과 함께 조류 독감에 대한 대응, 대비 및 보건 응급상황에 관한 심포지엄을 오는 7 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개발처에서는 독감이 빠르게 퍼질 상황에 대비해 이 지역에 개인용 보호 장비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내 및 해외의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류 독감에 대한 사실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tate.gov/g/oes/avianfl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